

## 제단을 만들되

출애굽기 27:1-21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단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를 예배하는 자들에겐 쇼핑몰이, 재미를 예배하는 자들에겐 TV나 인터넷이 그들의 제단입니다. 지식을 예배하는 자들에겐 학교나 도서관이, 재물을 예배하는 자들에겐 카지노가 그들의 제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것에 예배하는 자리, 곧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입니다.

저는 최근에 현대 사람들이 무엇을 열심히 예배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사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외국 서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그에 비해 얼마나 사람들이 적은지 직원들 빼고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식보다 소비를 더 추구하고 예배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참 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여 만든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건너뛰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제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제단의 특징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1. 회개의 제단

제단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제단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출 27:1) 제단의 모양은 네모반듯합니다. 그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찌그러지고 영클어진 삶을 네모반듯하게 질서 있게 회복해야 합니다

제단은 회막 동쪽에 있는 성막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이며,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성막에 가져와 그 희생 제물을 죽이며, 피를 흘리고, 살을 태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희생 제물처럼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제단의 모습대로 반듯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는 반듯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회복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열고 마침내 천국까지 여는 황금 열쇠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일본출신 오타니입니다. 신문의 칼럼을 보니 이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은 그의 바른생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스타지만 겸손하고, 돈도 많지만 검소하게 지내고, 술 담배 안하는 것은 물론이며 몸에 나쁜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반듯함이 그가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타니의 자기 결단에서 오는 반듯함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반듯함을 회복하면 이 세상에서의 복은 물론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제단처럼 예배의 첫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2. 찬송의 제단

제단은 회개의 제단이며 또한 찬송의 제단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뜻으로 싸고”(출 27:2)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뿔이라고 부르면서 그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외칩니다.(눅 1:67-69) 천상에서도 죽임 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에게 뿔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뿔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계 5:6-9) 예배에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여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시 147:12-14) 예루살렘에서 찬양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되고 생업도 풍성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은 나의 일주일간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찬양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충분하지 않지만 찬양,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 3. 불의 제단

제단의 이름이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출 27:3) 제단의 불은 어디서 올까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제물을 태웁니다.(레 9:23-24)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예배는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출 27:20-21) 이 불은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제단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제단은 회개의 제단, 찬송의 제단, 불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찬송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 ○ 나눔의 시간 ○

1.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신가요?
3. 제단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4.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제단이 아닌, 반드시 없애고 무너뜨려야 할 다른 제단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